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 나타난 운명의 파이도필리아

박 선 아
(연세대학교)

◆ 국문초록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은 고대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개인사와 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유르스나르의 대표적 역사소설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사랑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들의 사랑이 지닌 특이성을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문화, 특히 파이도필리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이 어린 소년(에로메노스)이 성장하여 자기 차례가 되어 에라스테스라는 성인 남성의 자리에 오르는 순환적 파이도필리아가 진행되는 점을 포착하여 안티노우스의 비극적 죽음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후 안티노우스를 자기 방식으로 복원하려는 황제의 노력을 전체성을 향한 사랑으로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두 인물이 비극적 운명의 파이도필리아에서 한 몸이 되어 양성동체 신화로 옮겨가는 신화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 고대신화를, 사랑과 쾌락을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냉정함과 무관심으로 계산된 애정을 조화라고 믿었던 황제의 파이도필리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유르스나르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의도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인간들의 관능적 사랑에 담겨야 할 공감적 사랑, 특히 성스러움과 숭고함의 가치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에 가까운 권력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순간에 간직해야 할 예지의 중요성도 이해해 보았다.

주제어 : 하드리아누스 황제, 안티노우스, 동성애, 파이도필리아, 양성동체 신화, 그리스신화, 전체성, 성스러움, 유르스나르

들어가는 말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 *Mémoires d'Hadrien*』¹⁾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가 고대 로마의 오현제 중 하나인 하드리아누스가 죽기 며칠 전 자신의 후계자이자 입양한 손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보내는 긴 유언서의 형식으로 쓴 대표적 역사소설이다. 작가는 지성과 명민함을 지닌 황제의 삶을 진지한 사료들을 토대로 1인칭 자서전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죽음을 예감한 황제가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성년이 되면서 차오른 명예욕과 죽음에 대한 단상, 우정과 사랑이라는 내밀한 인간사의 본질, 황제의 덕목에 대한 철학적 명상, 삶의 순간순간에 느끼는 고뇌와 갈등 등 황제의 역사적 사건보다 한 인간의 개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심오한 내면이 가장 잘 부각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인 안티노우스(Antinoüs)와의 사랑이다. 이들의 사랑이 지닌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에 동성애가 유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하나는 동성애가 남녀 간의 결혼이나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채워주지 못하는 강렬한 사적 관계의 욕구를 메워주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신화와 제의(祭儀)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동성애를 성인의 입문절차로서 혼인을 준비시켜주어 올바른 시민생활로 들어서게 해주는 하나의 사회통합요소라고 본 것이다.⁴⁾ 이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볼 때,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

1) Marguerite Yourcenar, *Mémoires d'Hadrien*(1951), in *Œuvres romanesques*, Paris, Gallimard, La Pléiade, 1982 ;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I, II), 광광수 옮김, 민음사, 2008.

2) 박선아, 「자서전, 역사소설, 미시사, 그 경계를 넘어서」, 『불어불문학회연구』 제80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 197쪽.

3) Sylvie Durup-Carré, “L’Homosexualité en Grèce antique; tendance ou institution?,” *L’Homme*, 26e année, no. 97-98, janv-juin, 1986, pp.371-377. 고대그리스 동성애에 관해 상이한 시각을 지닌 도버(K.J.Dover)와 서전트(B. Sergent)의 연구를 비교한 논문 참조.

(*éraste* 에라스테스)이 나이 어린 남성(*éromène* 에로메노스)을 지적, 신체적으로 교육시키는 사회적 책무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는 후자에 대해 에로스, 욕망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후자인 소년 역시 일반적인 사랑(*amour*)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하지만 어린 남성, 즉 에로메노스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랑에서 쾌락(*plaisir*)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수동적 사랑의 관행이 존재한다.⁵⁾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가 성적 관계와 교육적 관계의 혼합물이라는 보편적 성격을 띤긴 하지만, 사랑의 위계법칙에 따라 에로메노스에게는 애정적, 육체적 사랑보다는 입문과 성장이 목적인 동성애가 허용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유르스나르의 작품에서 안티노우스가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해석의 실마리가 된다.

본고는 유르스나르의 작품 속에 나타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안티노우스의 사랑 이야기가 고대의 자유롭던 동성애 문화 안에서 어떤 차별적인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파이도필리아(*paedophilia*)를 양성동체 신화(*mythe de l'androgyne*)와 연관 지어 유르스나르가 의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하드리아누스의 에로스, 파이도필리아

하드리아누스는 젊은 시절 트라야의 딸 사비나와 결혼하여 제국의 계승자가 되었으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못 여성들과 방탕에 빠져들곤 했다. 그런데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그에게 매혹적인 열다섯 살의 미소년이 나타난다. 소아시아의 비티니아(*Bithynie*, 현재 터키지역)를 순방하던 중, 그리스 미소년 안티노우스(*Antinouös*)를 만나게 된 것이다.

한 소년이 외따로 떨어져서 그 어려운 시구들을 방심한 듯도 하면서 동시에 생각에 잠긴 듯도 한 태도로 듣고 있었는데, 나는 금방, 숲속 깊은

4) *Ibid.*, pp.373-374.

5) *Ibid.*, p.372.

데서 무슨 희미한 새소리에 막연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목동을 생각했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돌아간 후 그를 내 곁에 있도록 했다. 그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 아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사려가 깊고 순진했다. (...) 그의 약간 무딘 목소리로 발음되는 그리스어는 아시아의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혹은 아마도 자기에게 나의 시선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자, 그는 당황해 하며 얼굴을 붉히고, 고집스러운 침묵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그런 침묵에 곧 익숙해졌다. 그와 나 사이에는 친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후로 내가 여행할 때면 언제나 나를 수행했고, 옛이야기 같은 몇 해 동안이 시작되었다. 안티노우스는 그리스인이었다. (...) 나는 그에게서 아폴로니우스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신봉과, 대왕의 동반 신민으로서의, 군주제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발견했다. 그는 놀라운 만큼 조용히 거동했다. 그는 마치 애완동물이나 수호신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강아지와도 같이, 한없이 즐겁고 무사태평한 심성과 외톨이 성향과 신뢰심을 지니고 있었다. 애무와 명령을 탐욕적으로 바라는 그 아름다운 강아지는 나의 삶에 자리를 잡았다.

Un jeune garçon placé à l'écart écoutait ces strophes difficiles avec une attention à la fois distraite et pensive, et je songeai immédiatement à un berger au fond des bois, vaguement sensible à quelque obscur cri d'oiseau. (...) Je le gardai après le départ des autres. Il était peu lettré, ignorant de presque tout, réfléchi, crédule. (...) Cette voix un peu voilée prononçait le grec avec l'accent d'Asie. Soudain, se sentant écouté, ou regardé peut-être, il se troubla, rougit, retomba dans un de ces silences obstinés dont je pris bientôt l'habitude. Une intimité s'ébaucha. Il m'accompagna par la suite dans tous mes voyages, et quelques années fabuleuses commencèrent. Antinoüs était grec (...) Je retrouvais en lui les superstitions d'un disciple d'Apollonius, la foi monarchique d'un sujet oriental du Grand Roi. Sa présence était extraordinairement silencieuse : il m'a suivi comme un animal ou comme un génie familier. Il avait d'un jeune chien les capacités infinies d'enjouement et d'indolence, la sauvagerie, la confiance. Ce beau lévrier avide de caresses et d'ordres se coucha sur ma vie. (제2권, 11-12쪽 ; pp.404-405.)⁶⁾

6) M. Yourcenar, *op.cit.* 이제부터 작품의 인용문은 처음에는 한국어 번역본의 페이지

사실 안티노우스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황제에게 매달려있는 천진한 아이처럼 애무와 복종의 대상물이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가치관의 차이로 논란을 불러오는 문제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사회에서 동성에 문화는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고대 그리스어로 어린 소년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적 취향을 ‘파이도필리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로마 황제에게도 낯설지 않은 성애의 한 양상이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어의 *παῖς*(파이스)는 어린 아이처럼 미성숙한 존재를 의미하며, 육체적 사랑을 뜻하는 *φιλία*(필리아)는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욕망을 지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함께 한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했다.⁷⁾

그러나 작품 속에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안티노우스의 사랑은 인간들 사이의 파이도필리아라기보다는 올림포스 정상에서 사는 절대 권력의 신과 지상에 사는 한 인간의 신화적 사랑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제우스 신과 인간 가니메데스의 신화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당시 마흔 네 살의 나는 내가 초조함이 없고 자신에 차 있으며, 나의 본성이 허용할 만큼 완전무결하고 영원한 것처럼 느꼈다. (...) 나는 그저 인간이라서 신이 되었던 것이다. 차후 그리스가 나에게 부여한 신적인 호칭들은, 내가 오래전부터 스스로 확인하고 있던 것을 공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A quarante-quatre ans, je me sentais sans impatience, sûr de moi, aussi, parfait que me le permettait ma nature, éternel. (...) J'étais dieu, tout simplement, parce que j'étais homme. Les titres divins que la Grèce m'octroya par la suite ne firent que proclamer ce que j'avais de longue date constaté par moi-même. (제1권, 252-253쪽 ; p.399.)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신의 본성에 대한 철학자들의 서툰 주해보다는 신들의 사랑과 투쟁에 관한 신화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니메데스와 에우로페 애인으로 주노를 가슴 아프게 하는 소홀한 남편이지만

지를, 이어서 원문의 페이지를 함께 넣겠다.

- 7) 윤일권, 「고대 그리스 사회와 신화 속의 동성애」, 『유럽사회문화』, 제3호, 2009, 9-11쪽.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파이도필리아는 서로 합심하여 그리스 남성의 이상인 ‘탁월함(아레테^{arete})’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교실’로 작용했다고 한다.

사물의 질서이고 정의의 화신이며 세계의 지주인, 인간이기 때문에 한층 더 신인 주피터, 이 지상의 주피터가 되고자 했다.

Depuis longtemps déjà, je préférais les fables concernant les amours et les querelles des dieux aux commentaires maladroits des philosophes sur la nature divine ; j'acceptais d'être l'image terrestre de ce Jupiter d'autant plus dieu qu'il est homme, soutien du monde, justice incarnée, ordre des choses, amant des Ganymèdes et des Europes, époux négligent d'une Junon amère. (제2권, 39쪽 ; p.417.)

하드리아누스는 올림포스에서 축연을 여는 신이다. 그리스의 제우스, 로마의 주피터이다. 여기서 그가 생각하는 애인이란, 에우로페와 동일시되는 플라톤적 사랑의 대상인 황후 플로티나이고, 가니메데스와 동일시되는 에로스적 사랑의 대상인 안티노우스이다. 그리스신화 속에서 가니메데스는 트로이의 왕자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미소년이었다. 그 아이에게 반한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장하여 납치한 후, 그를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와 제우스와 신들의 잔에 신들의 음료 넥타르를 따르는 시중을 들도록 했다는 전설이다.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가니메데스는 영원한 젊음과 에로티즘을 떠올리게 하며 파이드필리아 신화의 시원이 된다. 후대에 이어진 회화 작품들에서는 렘브란트(Rembrandt)가 상상한 것처럼 제우스의 갑작스런 납치로 놀란 어린 아이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코레조(Correggio)나 루벤스(Rubens)의 경우처럼 독수리에게 물려 하늘을 나는 가니메데스의 매혹적이고 에로틱한 시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작품에서도 하드리아누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안티노우스의 고풍적인 관능을 엿볼 수 있다. 비티니아 소년은 “수선화와도 같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신선함을 띠고 있는, 나신에서도 또 더 벗은 듯한 자기방어를 버린 육체”⁸⁾를 지녔으며, “열정적으로 우아한 태도로 춤을 추었고, 얼마 후 꺼져가는 모닥불 옆에서 그는 그의 강건하고 예쁜 목을 뒤로 젖히고 노래를 불렀다.”⁹⁾ 또한 하드리아누스의 시선이 닿는 안티노우스는 가니메데스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화 속 다른 미소년도 형상화하고

8) *Mémoire d'Hadrien*, 제1권, 231쪽 ; p.390.

9) *Ibid.*, 제2권, 32쪽 ; pp.413-414.

있다. 때로 바람에 머리카락을 훑날리며 바위에 기대어 조는 모습은 “한낮의 엔디미온(Endymion)”¹⁰⁾과 같다. 달의 여신 셀레네가 사랑한 미소년 엔디미온과도 비교되는 것이다.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스의 곁에서, 점차 인간이 아닌 정령(精靈)으로, 마침내 신의 이미지로 변모한다. 과일과 꽃을 들고 누워있는 젊은이의 모습은 “평정된 대지의 정령”¹¹⁾으로 보이고, 힘찬 헤르메스, 관능적인 바커스, 에로스와 같은 다신(多神)들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 계절들마저 우리들의 생활을 올림포스 신들의 축연처럼 만들어주기 위해, 나의 수행원들 가운데 있는 시인들과 음악가들과 협력하는 것 같았다. (...) 그 얼마 전에 사르데냐 섬에 기항했을 때, 우리들은 소나기 때문에 한 농부의 오두막집에 몸을 피한 적이 있었다. 안티노우스는 집주인이 다랑어 고기 두 조각을 불등걸 위에서 돌리며 굽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헤르메스를 동반하고 필레몬을 방문한 제우스인 양 생각했다. 다리를 굽히고 침대에 몸을 얹힌 그 젊은이는 바로 샌들의 끈을 풀고 있는 그 헤르메스였다. 그 포도송이를 따고 혹은 나를 위해 그 붉은 포도주 잔을 들어 술 맛을 보여주는 그는 바커스 같기도 보였다. 활줄에 닿아 못이 박힌 그 손가락들은 또 에로스의 손가락들이었다.

(...) les saisons semblaient collaborer avec les poètes et les musiciens de mon escorte pour faire de notre existence une fête olympienne. (...) Quelque temps plus tôt, au cours d’une escale en Sardaigne, un orage nous fit chercher refuge dans une cabane de paysans ; Antinoüs aida notre hôte à retourner une couple de tranches de thon sur la braise ; je me crus Zeus visitant Philémon en compagnie d’Hermès. Ce jeune homme aux jambes repliées sur un lit était ce même Hermès dénouant ses sandales ; Bacchus cueillait cette grappe, ou goûtait pour moi cette coupe de vin rose ; ces doigt durcis par la corde de l’arc étaient ceux d’Éros. (제2권, 47-48쪽 ; p.421.)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느끼는 매혹적인 시선 속에서 안티노우스는 이미

10) *Ibid.*, 제2권, 17쪽 ; p.408.

11) *Ibid.*, 제1권, 232쪽 ; p.390.

살아있는 신화 속의 신이다. 하지만 그는 신화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점차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신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로마제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황제와 어깨를 겨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에 관해 남아 있는 무수한 사료들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유르스나르가 집필을 위해 활용한 안티노우스에 관한 시, 사료, 편지, 회화, 조각, 메달, 화폐들만 보더라도¹²⁾, 그가 역사와 신화가 하나가 된 인물임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불행하게도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II. 안티노우스의 죽음과 신화화

세월이 지나 열아홉 살이 되어가던 안티노우스는 권력자의 애정에 어떤 불안을 느낀다. 하드리아누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남성들도 파이도필리아를 쾌락과 동시에 교육의 차원에서 생각했기에, 소년이 성인 남성의 징후를 보이면 그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소년의 시기가 지나 성인이 되면 그는 제2의 입문절차로 다른 소년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제3의 입문절차로 결혼 적령기에는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라고 하겠다. 안티노우스의 부드러운 육체도 식물처럼 크게 자라나고 변화했다. “클라우디오폴리스에서 호메로스의 시의 긴 단편들을 암송한 어린 문하생이었던 소년은, 관능적이고 현묘한 시에 열을 올리고 플라톤의 어떤 대문장에 심취¹³⁾하는 청소년기의 과정을 지나, 마침내 스스로의 쾌락을 찾아 나설 성인 남자의 나이가 된 것이다. 일반적 관습대로, 하드리아누스는 안티노우스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나의 사랑은 더해졌지 덜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의 무게는 마치 가슴을 가로질러 다정스럽게 놓인 팔의 무게처럼, 지탱하기에 조금 조금씩 무거워져 갔다. (...) 그리고 스미르네에서 나는 어느 날 밤 사랑하는

12) *Ibid.*, “Note”, 제2권, 「자료개괄」, 298-302쪽 ; pp.550-552.

13) *Ibid.*, 제2권, 44쪽 ; p.419.

그 아이에게 억지로 유녀(遊女)와 함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다. 소년은 배타적이기에, 사랑에 대해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혐오감 때문에 구역질을 일으킬 정도였다. 이윽고 그는 그런 데에 익숙해졌다. 그 헛된 시도들은 방탕의 취미로 웬만큼 설명되지만 거기에는 쾌락을 함께 즐기면서도 여전히 상호 간의 사랑과 우정을 유지하는, 그런 새로운 친밀감을 조성하려는 희망과, 나의 젊은 시절의 경험들을 그에게도 겪게 하고 싶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마도, 한결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를 조금 조금씩 아무런 정신적 부담이 없는 범속한 즐거움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 -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혼잡하게 할 위험이 있는 그 불안 많은 애정을 냉대해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거기에는 고뇌가 없을 수 없었다.

Je n'aimais pas moins ; j'aimais plus. Mais le poids de l'amour, comme celui d'un bras tendrement posé au travers d'une poitrine, devenait peu à peu lourd à porter. (...) Et il y eut cette nuit de Smyrne où j'obligeai l'objet aimé à subir la présence d'une courtisane. L'enfant se faisait de l'amour une idée qui demeurait austère, parce qu'elle était exclusive ; son dégoût alla jusqu'aux nausées. Puis, il s'habitua. Ces vaines tentatives s'expliquent assez par le goût de la débauche ; il s'y mêlait l'espoir d'inventer une intimité nouvelle où le compagnon de plaisir ne cesserait pas d'être le bien-aimé et l'ami ; l'envie d'instruire l'autre, de faire passer sa jeunesse par des expériences qui avaient été celles de la mienne ; et peut-être, plus inavouée, l'intention de le ravalier peu à peu au rang des délices banales qui n'engagent à rien. Il entra dans l'angoisse dans mon besoin de rabrouer cette tendresse ombrageuse qui risquait d'encombrer ma vie. (제2권, 53-54쪽 ; pp.423-424.)

황제가 점차 그와 거리를 두고 사랑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로 존재하는 사랑과 쾌락이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깊은 연정이 단지 사랑과 쾌락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두 동성의 연인 사이에서 사랑의 무게는 각기 다르게 드러난다.

트로아스를 여행하는 도중 (...) 나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얻어 헥토르의 무덤 앞에서 묵념을 했다. 안티노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앞으로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나를 동반한 그 어린 사슴을 아킬레우스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나는 특히 여러 책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그 열정적이고 신의에 찬 우정을 조롱해 버렸다. 모욕을 당한 그 아름다운 소년은 얼굴을 새빨갭게 붉혔다.

Au cours d'un voyage en Troade, (...) Je trouvai quelques moments pour me recueillir sur la tombe d'Hector ; Antinoüs alla rêver sur celle de Patrocle. Je ne sus pas reconnaître dans le jeune faon qui m'accompagnait l'émule du camarade d'Achille : je tournai en dérision ces fidélités passionnées qui fleurissent surtout dans les livres ; le bel être insulté rougit jusqu'au sang. (제2권, 54-55쪽 ; p.424.)

파트로클레스의 무덤 앞에서 상념에 잠긴 안티노우스는 자신의 아킬레우스가 바로 황제라고 여기고 그들 간의 연정과 우정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황제에게 안티노우스는 여전히 신도 영웅도 아닌 어린 사슴 같은 ‘파이스’에 불과하다. 신분의 차이뿐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도 그들 간의 불균형성은 안티노우스를 ‘메두사’처럼 어둡게 변화시킨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변덕을 부리고, 고집스러운 이마 위의 메두사 같은 둥근 머리 타래들을 흔들며 분노를 표출하다가도 마비 상태와 같은 우울을 번갈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¹⁴⁾ 열정과 우정 사이에서 조롱당한 감정, 황제에게 처음 따귀를 맞아본 공포의 경험, 이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운 예감, 관행적인 파이도필리아 문화는 안티노우스에게 가혹한 상처를 남기고 그의 삶을 암울하게 한다.

안티오케이아를 출발하기 바로 며칠 전, 나는 이전처럼 카시우스 산정으로 제물 봉헌을 하러 올라갔다. 등정은 밤에 이루어졌다. (...) 벼락이 우리들 머리 위에서 터지더니, 제물을 죽이는 사제와 제물로 바칠 짐승을 단번에 죽여 버렸다. (...) 카브리야스와 대사제는 탄성을 질렀다 : 그 신의 검으로 제물이 된 사람과 사슴 새끼는 나의 수호신과 영원히 결합되

14) *Ibid.*, 제2권, 56쪽 ; p.424.

었다는 것이었다 : 즉 그 두 생명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안티노우스는 나의 팔에 매달려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포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야 내가 깨닫게 된 어떤 생각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삶의 실추를, 즉 늙음을 마주하여 공포에 질리는 자는 오래전부터, 최초의 조락의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혹은 심지어 그보다 훨씬 앞서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고 있었어야 한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의 그 떠남이 하나의 반항처럼 보이거나 어떤 불평도 내포하는 것이어서도 한 되는 것이었다. 카시우스 산의 벼락사건은 그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 죽음이란 섬김의 최후의 형태, 아직 남아있는 최후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Peu de jours avant le départ d'Antioche, j'allai sacrifier comme autrefois sur le sommet du mont Cassius. L'ascension fut faire de nuit (...) Il allait s'accomplir, quand la foudre éclatant sur nous tua d'un seul coup le victimaire et la victime. (...) Chabrias et le grand-prêtre se réciaient d'admiration : l'homme et le faon sacrifiés par cette épée divine s'unissaient à l'éternité de mon génie : ces vies substituées prolongeaient la mienne. Antinoüs agrippé à mon bras tremblait, non de terreur, comme je le crus alors, mais sous le coup d'une pensée que je compris plus tard. Un être épouvanté de déchoir, c'est-à-dire de vieillir, avait dû se promettre depuis longtemps de mourir au premier signe de déclin, ou même bien avant. (...) Mais il fallait encore que ce départ n'eût pas l'air d'une révolte, et ne contint nulle plainte. L'éclair du mont Cassius lui montrait une issue : la mort pouvait devenir une dernière forme de service, un dernier don, et le seul qui restât. (제2권, 63쪽 ; pp.428-429.)

방황하던 시기에 겪게 된 카시우스 산의 벼락사건은 안티노우스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준다. 황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 사랑은 어떠한 노여움도 품지 않은 천진무구한 인간 제물이 올리는 자기 봉헌의 제사로서, 신성한 비의(秘儀)에 입문하는 제의적 성격을 띤다. 그 제의의 구체적 방식은, 한 여자 마술사가 나일강의 물을 담은 물통 안에 꿀과 장미 향유를 바른 매를 집어넣어 숨이 끊어지게 한 후, 그 새의 수명이 하드리아누스의 수명에 더해지는 이집트 의식을 보고 난 후¹⁵⁾ 정해진 것이

다.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동일한 일시에, 안티노우스 스스로 카노보스의 나일 강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봉헌대 위에 제물의 재가 아직도 미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브리야스는 거기에 손가락들을 찢러 넣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잘라낸 머리털 한 타래를 꼬집어 내었다. 이젠 우리들에게 강독을 수색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 나는 매끄러운 저수지 제방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이미 진흙에 파묻힌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카브리야스의 도움을 받아 나는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그의 몸뚱이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 더 할 수 없이 다소곳한 그 몸뚱이는 체온을 다시 찾고 되살아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시신을 배로 옮겼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 만물의 주인, 세계의 구원자는 쓰러져 버리고, 이젠 다만 배 갑판 위에서 오열하고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사내가 있을 따름이었다.

Sur une table à offrandes, les cendres d'un sacrifice étaient encore tièdes. Chabrias y plongea les doigts, et en retira presque intacte une boucle de cheveux coupés. Il ne nous restait plus qu'à explorer la berge. (...) Je descendis les marches glissantes : il était couché au fond, déjà enlisé par la boue du fleuve. Avec l'aide de Chabrias, je réussis à soulever le corps qui pesait soudain d'un poids de pierre. (...) Ce corps si docile refusait de se laisser réchauffer, de revivre. Nous le transportâmes à bord. Tout croulait ; tout parut s'éteindre. Le Zeus Olympien, le Maître de tout, le Sauveur du monde s'effondrèrent, et il n'y eut plus qu'un homme à cheveux gris sanglotant sur le pont d'une barque. (제2권, 87-88쪽 ; p.440.)

제우스와 동일시되던 하드리아누스는 안티노우스를 잃고 나서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 그 아이로 인해 분명 행복했는데, 그제야 사랑에 책임지지 못한 자신을 원망한다. 또한 그 아이가 자신에게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지 못한 점을 슬퍼한다. 황제는 안티노우스가 자신을 위해 증명해 보인 희생적 죽음이 '끔찍한 희열'로 받아들여지면서도, 그 여린 마음의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었을 쓰라린 아픔, 절망, 증오를 가늠해보고서 괴로워

15) *Ibid.*, 제2권, 82쪽 ; pp.437-438.

한다. 안티노우스의 헌신적 사랑이 하드리아누스에게는 하나의 징벌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이는 오갈 데 없는 안티노우스가 자신의 모든 것인 황제의 사랑을 영원히 매어 둘 방법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른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유는 그의 상황이 일반적인 파이도필리아와 상이한 관계에 놓였기 때문이다. 즉, 에로메노스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 많은 스승이자 연인에게 지식을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에라스테스의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유일한 권력자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감히 들어설 수 없으므로 파이도필리아의 순환 공식이 막혀 버린 것이다.¹⁶⁾ 절정에 이른 스무 살의 청년이 전지전능한 황제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점차 밀려나게 되자, 방향을 잃고 당황해 하다가 이른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티노우스의 진실한 사랑을 뒤늦게 헤아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의 희생적 죽음을 기리기 위해 영원한 삶, 불멸의 신화를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우선 안티노우스를 미라로 만들어 이집트 왕들이 무덤 장소로 예정해 놓은 아라비아 산맥의 동굴에 안장시켰다. 불멸의 육체로 영원의 세계에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¹⁷⁾. 뿐만 아니라 그를 추모하는 신전들과 경기대회, 메달과 화폐 주조, 광장 위의 조상 건립 등을 지시한다. 특히 애도를 위한 “안티노우스의 예배당들과 신전들은 마법의 방인 양, 삶과 죽음 사이의 신비로운 이행이 이루어지는 기념 건물이요 질식시킬 것 같은 고통과 행복의 기도실로서, 기도를 드리고 신령이 재현하는 장소였다.”¹⁸⁾

16) Pascale Doré, “Affinités hellénistiques: l'Eros au masculin dans *Le Coup de Grâce et Mémoires d'Hadrien*,”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SIEY)*, Bulletin n.20, décembre 1999, p.92. 유르스나르의 소설 주인공 하드리아누스와 에릭을 통해 남성 동성애와 고대헬레니즘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논문이다.

17) “클라우디오폴리스의 아들은 그 무덤 속으로 마치 어느 파라오처럼, 마치 어느 프톨레마이오스 왕처럼 내려갔다. 우리들은 그를 홀로 버려두었다. 그는 공기도 빛도 계절도 끝도 없는 지속, 어떤 삶도 거기에 비하면 짧은 것으로 보이는 그 지속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는 그 안정에, 아마도 그 평온에 도달했을 것이다.”, *Ibid.*, 제2권, 106쪽 ; p.451.

18) *Ibid.*, 제1권, 221쪽 ; p.385.

III. 파이도필리아에서 양성동체 신화로

자신의 에르메노스를 세상에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황제의 집착에 가까운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 안티노우스를 제국의 신민들에게 추앙받는 불멸의 신으로 만들어 갔다.

안티노우스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나의 계획들 가운데 가장 당치 않은 것, 나 혼자에게만 관계되는 괴로움이 외부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시대는 신들을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열렬한 신들, 가장 슬픈 신들, 삶의 술에 저세상의 쓴 꿀을 섞는 신들을 선호한다. 텔포이에서 그 아이는 유령들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두운 통로의 지배자, 수문장 헤르메스가 되었다. 옛날 그의 어린 나이와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입신함이 허락되지 않았던 엘레우시스교에서는 그를 비의(秘儀)의 젊은 바커스, 감각과 영혼의 접경 지역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 그의 조상들의 고향인 아르카디아에서는 그를 숲의 신들인 판과 디아나와 결부시키고 있고, 티부르의 농부들은 벌들의 왕인 온유한 아리스타이오스와 동일시하고 있다. (...) 사물의 본성에 내재하는 부흥의 힘에 의해, 그 우울하고 매혹적인 젊은이는 민중들의 경건한 마음에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지주, 죽은 아이들의 위안자가 된 것이다. 비티니아 화폐에 새겨져 있는 그의 모습, - 부동하는 곱슬머리에, 그가 여간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경탄하는 듯한 고지식한 미소를 띠고 있는 15세 소년의 옆얼굴은 신생아들의 목에 호신파로 걸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마을 묘역에서 작은 무덤들의 뚜껑 위에 못 박아 놓기도 한다. (...)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때 이른 죽음을 보상했던 것이다 : 그의 한 이미지가, 한 반영이, 한 연약한 메아리가 적어도 수세기 동안은 시간의 바다 위에 떠올라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불멸케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Le culte d'Antinoüs semblait la plus folle de mes entreprises, le débordement d'une douleur qui ne concernait que moi seul, Mais notre époque est avide de dieux ; elle préfère les plus ardents, les plus tristes, ceux qui mêlent au vin de la vie un miel amer d'outre-tombe. À Delphes, l'enfant est devenu l'Hermès gardien du seuil, maître des passages obscurs qui mènent chez les ombres. Éléusis, où son âge et sa qualité

d'étranger lui avaient interdit autrefois d'être initié à mes côtés, en fait le jeune Bachus des mystères, prince des régions limitrophes entre les sens et l'âme. L'Arcadie ancestrale l'associe à Pan et à Diane, divinités des bois ; les paysans de Tibur l'assimilent au doux Aristée, roi des abeilles. (...) par un de ces rétablissements inhérents à la nature des choses, l'éphèbe sombre et délicieux est devenu pour la piété populaire l'appui des faibles et des pauvres, le consolateur des enfants morts. L'image des monnaies de Bithynie, le profil du garçon de quinze ans, aux boucles flottantes, au sourire émerveillé et crédule qu'il a si peu gardé, pend au cou des nouveau-nés en guise d'amulette ; on la cloue dans des cimetières de village sur de petites tombes. (...) j'ai compensé comme je l'ai pu cette mort précoce ; une image, un reflet, un faible écho surnagera au moins pendant quelques siècles. On ne fait guère mieux en matière d'immortalité. (제2권, 222-223쪽 ; pp.508-509.)

사실 살아서는 신들의 향연 속 가니메데스처럼 작은 자리를 차지했던 안티노우스이지만, 죽어서는 황제의 나머지 인생을 독차지한 중요한 신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망자를 인도하는 헤르메스, 신성과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바커스 신, 숲의 신 판(Pan)과 동물의 여신 디아나와 같이 고대인들에게 친숙한 신들이 안티노우스와 동일시된다. 그의 입문을 거부한 적이 있는 엘레우시스교의 여신들에게까지 영원한 도시의 시민권자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디오니소스 극장에 조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안티노우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워진, 죽어서도 사랑받는 신이 되었다. 즉 약하고 가난하며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망자의 길을 돌보아주는 민중의 신이 된 것이다. 안티노우스가 이런 숭배를 받는 이유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자의 불멸성’¹⁹⁾에 기인하는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불멸을 이룬

19) Maira José Vazquez de Parga, “L’histoire mythifiée : Antinoüs,” *Roman, Histoire et Myth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Tours,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 1995, p.445. 안티노우스를 파이도필리아의 희생자라 기보다는 숭고한 사랑을 보여준 구원자이자 신의 이미지로 고찰하고 있는 논문이다.

부활의 신이기도 하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희생으로 하드리아누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했던 한 존재의 구원 개념²⁰⁾이 녹아있는 구원의 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스와 동등한 신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살아있다면 안티노우스가 스무 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날, 하드리아누스는 봉인되었던 감정이 북받쳐 통곡을 한다. 그날 이후 신하 카브리아스(Chabrias)가 그에게 독수리 성좌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별 하나를 보여준다. ‘갑자기 나타난 보석처럼 반짝이고 심장처럼 고동치는 그 별’²¹⁾은 하드리아누스에게는 안티노우스를 상징하는 별이다. 그리스신화에서 가니메데스가 죽은 후, 제우스가 그를 독수리좌 옆을 맴도는 별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 별은 신들의 벡타르를 따르던 미소년을 상징하는 물병 모양의 성좌이다. 그리고 독수리 성좌는 물론 제우스를 상징한다. 하드리아누스 역시 하늘의 별로 떠 있는 자신의 가니메데스를 찾아 매일 밤하늘을 바라본다.

나는 그 별을 그 아이의 별로, 그 아이를 표시하는 별로 정했다. 나는 매일 밤 그 별의 진행을 따르는 데 진력했다. 나는 그 부분의 하늘에서 기이한 형자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었다.

J'en fis son étoile, son signe. Je m'épuisais chaque nuit à suivre son cours ; j'ai vu d'étrangers figures dans cette patrie du ciel. On me crut fou. Mais peu importait. (제2권, 100-101쪽 ; pp.446-447.)

안티노우스의 죽음으로 두 연인의 사랑은 비극적 파이도필리아로 끝나버렸지만, 뒤늦게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속죄하려고 애쓴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두 사람의 사랑은 지상과 저 너머라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러나 신이라는 동등한 자리에서 다시 이어진다. 그러다가 점점 하늘에 나란히 붙어있는 제우스 성좌와 가니메데스 성좌처럼 이들의 사랑도 합체를 이룬다. 비로소 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사랑이 성화(聖化)되기 때문이다. 사랑이 성스러운 것이며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희생을 통해 안티노우스가

20) *Ibid.*

21) *MH*, 제2권, 100쪽 ; p.446.

알려준 진정한 애정의 가치이다.

한때 하드리아누스는 안티노우스를 애완동물 정도로 생각했지, 그리스의 영웅 파트로클레스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영웅의 무덤 앞에서 상념에 젖어있던 그 소년을 조소했던 그가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레스의 사랑과 우정을 어느새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아킬레우스의 섬을 방문한 아리아노스(Arrien)가 안티노우스를 잃고 시름에 빠져 지내는 황제에게 보낸 위로의 시편이 계기가 된다. 아리아노스는 그 청년을 파트로클로스에 비교하면서, 영웅적인 면모보다 친우의 죽음에 더 절망하고 슬피 애도하는 아킬레우스의 순수성을 찬양한다. 결국 안티노우스의 사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인간적 위대함을 영웅으로 칭송한 것이다.

향해하기 힘든 그 바다의 북쪽 해안에서 신 등은 신화 속에서는 아주 큰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조그만 섬, 아킬레우스의 섬에 닿았사옵니다. (,,,)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섬이란 말이 적절하긴 하지만, 파트로클로스의 섬이기도 하옵니다. (...) 아킬레우스는 그 자신 그 인근의 해역으로 오는 향해자들의 꿈속에 나타난다는데, 그래서 디오스쿠로이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듯,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위험한 뱃길을 경고해 준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파트로클로스의 망령이 그 아킬레우스의 옆에 나타난다는 것이옵니다. (...) 아킬레우스는 용기와, 영혼의 힘과, 육체의 민활성과 결합된 정신의 지식 그리고 그의 젊은 친우에 대한 열렬한 사랑 등으로 신에게는 때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여겨지옵니다. 그리고 또 신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그가 그 지극히 사랑하는 친우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로 하여금 삶을 경멸하게 하고 죽음을 원하게 한 그 절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듯이 보이옵니다.

Sur la rive septentrionale de cette mer inhospitalière, nous avons touché une petite île bien grande dans la fable : l'île d'Achille. (,,,) Mais cette île d'Achille, comme il convient, est aussi l'île de Patrocle, (,,,) Achille lui-même apparaît en songe aux navigateurs qui visitent ces parages : il les protège et les avertit des dangers de la mer, comme le font ailleurs les Dioscures. Et l'ombre de Patrocle apparaît aux côtés d'Achille. (,,,) Achille me semble parfois le plus grand des hommes par le courage, la force d'âme, les connaissances de l'esprit unies à l'agilité

du corps, et son ardent amour pour son jeune compagnon. Et rien en lui ne me paraît plus grand que le désespoir qui lui fit mépriser la vie et désirer la mort quand il eut perdu le bien-aimé. (제2권, 204-206쪽 ; pp.499-500.)

파이도필리아 사랑은 이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평등한 사랑으로 발전한다. 아리아노스가 전하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따르면, 아킬레우스를 대신하여 죽은 파트로클레스, 그런 친구의 희생을 잊지 못해 영웅의 전쟁도 잊어버린 아킬레우스, 이들 간의 사랑이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그 섬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 자체가 위대한 영웅이다. 항해자들의 꿈속에서 아킬레우스의 곁에 나타난다는 망자 파트로클레스의 이미지가 안티노우스와 겹쳐진다. 아킬레우스 섬은 하드리아누스가 그의 오랜 친우와 결합하기를 꿈꾸었던 재회의 장소이자, 거기서 언젠가 죽기를 바라는 이상의 장소이다²²⁾,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언젠가 이 섬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맺는 말

결국 유르스나르가 부각시킨 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파이도필리아는 불운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후 안티노우스의 죽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원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전체성의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극적인 운명의 파이도필리아는 양성동체(androgyne) 혹은 양성전일(兩性全一)신화의 사랑으로 옮겨간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남녀 한 몸으로 태어난 아들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os)를 양성동체의 신으로 보는데, 그에게 반한 물의 요정 살마키스(Salmacis)가 그가 목욕하려고 호수에 몸을 담그는 순간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한 몸으로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남신과 여신,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모든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 빛과 어

22) *Ibid.*, 제2권, 279쪽 ; p.540.

들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으로 통합시키는 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한다. 종교 신화학자 엘리아데에 따르면, 이 양성동체 신화는 전체성(la totalité)에 대한 이끌림이라고 말한다. 이때 전체성이란 완전하고 성스러운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타자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숭고한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화의 기원적 관점에서, 신들의 이원적 일체성을 반영하는 원초적 양성전일, 즉 절대적 시원으로의 회귀를 상징하기도 한다.²³⁾

그런데 유르스나르 작품의 후반부에서 암시되는 양성동체라는 신화적 요소는 사랑과 쾌락을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열정에 냉정함과 무관심을 집어 넣어 철저히 계산되고 가늠된 애정의 교리를 '조화'라고 믿었던 황제의 파이도필리아 사랑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유르스나르가 이 개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양성동체의 사랑은 유르스나르가 사랑에 관한 한 대답에서 '공감적 사랑(l'amour de sympathie)'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하다.

우리와 같은 우연들, 우리와 같은 변천사들을 나누는, 그것이 무엇이든, 한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의 감정이라고 말해두자 (...) 그것은 소설이나 희곡에서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그릇되게 불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든 아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관능적이면서도 공감이 열정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관계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랑 개념에서, 어쩌면 유럽 전체의 사랑 개념에서 언제나 나를 매우 불편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해두어야겠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부재이다.

Disons le sentiment profond de tendresse pour une créature, quelle qu'elle soit, qui partage les mêmes hasards, les mêmes vicissitudes que nous. (...) Ce n'est pas exactement ce que les gens appellent l'amour dans les romans, ou au théâtre. Il ne s'agit pas, d'ailleurs, de ce qu'on nomme si mal "l'amour platonique"; il s'agit d'un lien, charnel ou non, sensuel

23) Biondi, Carminella, "Mythe de l'Androgyn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et de Michel Tournier", *Roman, Histoire et Myth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Tours: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 1995, pp.47. 이 논문에서는 유르스나르의 작품 『흑의 단계 *L'Oeuvre au noir*』와 『미왕 *Le Roi des aulnes*』에 나타난 양성동체 신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toujours, quoi qu'on fasse, mais où la sympathie prend le pas sur la passion. Je dois dire aussi qu'il y a une chose qui m'a toujours beaucoup gênée dans la notion française de l'amour, et peut-être dans toutes les conceptions européennes de l'amour, c'est l'absence du sacré (...)²⁴⁾

유르스나르는 자신의 시대에서 사랑의 관능적 관계가 성스럽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와 신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스러운 사랑의 제의 안에서 합일을 이룬다. 이처럼 너와 나의 경계가 없는 전체성 안에서, 서로를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자기희생도 불사하는 성스럽고 숭고한 사랑의 결합이 고대인의 자유롭고 유연한 양성동체 신화의 사유방식과 닿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늘에서 서로를 비추어주는 한 쌍의 성좌로, 아킬레우스의 것이기도 하고 파트로클로스의 것이기도 한 신비한 섬에서 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사랑이 하나로 맺어지는 것이다.

다만 작품 속의 하드리아누스가 토로한 바처럼, 만약 그가 현명했다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안티노우스와 오래오래 행복했을 것이다. 유르스나르는 두 역사적 인물의 사랑과 그 신화화를 통해, 이성 간의 사랑이든 동성 간의 사랑이든, 인간들의 관능적 사랑에 담겨야 할 성스러움과 숭고함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는 권력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순간에 간직해야 할 예지(sagesse)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24) Marguerite Yourcenar, *Les Yeux Ouverts - Entretien avec Matthieu Galay*, Le Centurion, 1980, p.73.

■ 참고문헌

〈1차 자료〉

Yourcenar, Marguerite, *Les Yeux Ouverts - Entretien avec Matthieu Galay*, Paris: Le Centurion, 1980, p.73.

_____, *Mémoires d'Hadrien*(1951), in *Œuvres romanesques*, Paris: Gallimard, La Pléiade, 1982.

〈2차 자료〉

박선아, 「자서전, 역사소설, 미시사, 그 경계를 넘어서」, 『불어불문학연구』 제80집, 2009.

윤일권, 「고대 그리스 사회와 신화 속의 동성애」, 『유럽사회문화』 제3호, 2009.

Biondi et Rosso, C.,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Pise, 1988.

Biondi, Carminella, “Mythe de l'Androgyn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et de Michel Tournier”, *Roman, Histoire et Myth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Tours: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 1995.

Blanckeman, Bruno, *Lectures de Marguerite Yourcenar : Mémoires d'Hadrien*, Rennes: Ed. PU Rennes, 2014.

Doré, Pascale, “Affinités hellénistiques: l'Eros au masculin dans *Le Coup de Grâce et Mémoires d'Hadrien*,”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SIEY)*, Bulletin n.20, décembre 1999.

Durup-Carré, Sylvie, “L'Homosexualité en Grèce antique; tendance ou institution?,” *L'Homme*, 26e année, no. 97-98, janv-juin, 1986.

Filaire, Marc-Jean, “Le centaure et le faon Antinous et l'animalité dans les Mémoires d'Hadrien,”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 (SIEY)*, Bulletin n.32, décembre 2011.

Levillan, Heriette, *Mémoires d'Hadrien de Marguerite Yourcenar*, Paris:

Folio, 1992.

Vazquez de Parga, Maira José, “L’histoire mythifiée: Antinoüs”, *Roman, Histoire et Mythe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Tours: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 1995.

Marguerite Yourcenar et le sacré (vol.1), Centre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 bulletin n.3, décembre 1991.

Marguerite Yourcenar et le sacré (vol.2), Centre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 bulletin n.4, décembre 1992.

❖ ABSTRACT

Pedophilia of Destiny in *Memoirs of Hadrian* of
Marguerite Yourcenar

Park, Sun Ah

Memoirs of Hadrian is a representative historical novel of Yourcenar which focuses on the personal history of the Emperor Hadrian of Rome and on his inner side. This study focuses on the love story of Hadrian and Antinous, and examines the specificity of their love in relation to the homosexual culture of ancient Greece, especially pedophilia. Through this topic, we have analyzed the causes of the tragic death of Antinous by capturing the progression of a cycle of pedophilia, a young boy (Eromenos), that grows into manhood as Erastes.

This study defines the emperor's efforts to restore Antinous in his own way after a failed love, as a passion toward totality. Therefore, we see the two figures as a process of mythology in which the pie of tragic destiny is transferred to the myth of androgyny that becomes one body and one unity in pedophilia. We see this ancient myth as a concept contrasting with the sense of pedophilia of the emperor, who arbitrarily distinguished between love and pleasure, and believed that the affection calculated with calmness and indifference was a harmony of love.

This study explains the intention of Yourcenar in her work to present the value of empathic love, especially sacredness and sublime, which should be a part of sensual love. It also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sagacity that a person with power must hold in the happiest and most loving moments of life.

Key Words: Hadrian Emperor, Antinous, homosexuality, pedophilia, myth of androgyny, Greek mythology, totality, holiness, Yourcenar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